

## 북한 도시개발에 관한 제안

### A Proposal for Urban Development of North Korea

김학철 / 한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by Kim Hak-Cheol

남북정상회담 6.15선언을 통해서 4대 합의사항이 발표된 후 도시계획분야도 통일을 대비해야하는 현실적 요구를 맞게 됐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한다. 그러나 통일대비의 전제조건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에 주어진 현재 상황과 여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먼저 북한을 북한의 안경을 통해 보는 것이다. 마치 남쪽의 것들을 남쪽의 안목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다음에 통일의 문제를 세계관점(Global Perspective)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할 것이다.

#### 연구 목적

'생태적 통일국토개발'에 관한 이론과 전략,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통일 후 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가진다.

##### '생태철학'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한다

토지의 주인인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 가능성은 크다. 21세기 초기에 선을 보인 '생태도시'는 토지사용제를 갖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남쪽에서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건축을 자유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효율적이며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생태마을'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보면 북한의 토지공유제도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하면 끝짜가 첫째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동안 적대관계에서 서로 부정적인 면만 들어내오다가 공(公) 개념을 가지고 보니 긍정적인 면이 보이게 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남쪽에도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특히 남쪽의 건축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생태계가 완전히 무시된 국토개발 현상을 보면 첫째가 끝지된 끝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도시계획과 건축설계에서 생태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요즘 환경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환경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북쪽에는 환경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공해가 없는 나라”라고 선전해온 것과는 달리 무절제한 공장운영에서 오는 수질 및 대기오염, ‘다락 밭’ 개간과 ‘새 땅 찾기’ 운동에서 오는 자연훼손 등에서 오는 결과로 갖가지 공해병 문제가 크다. 따라서 양쪽이 나름대로의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개발에 관한 한 북쪽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바로 토지공유화제도다. 이것을 살려 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이 그 동안 펼쳐온 ‘도농균형’ 개발과 ‘직주근접’ 정책 등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태학적인 논리와 잘 부합되는 정책이다. 토지공유제도를 즉각적으로 사유제로 바꾸면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동구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경험한 체제전환, 통일 독일이 경험한 ‘체제통합’, 그리고 중국이 겪은 ‘체제개혁’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인에게 토지를 장기로 공공 임대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 장기로 임대 받은 개인은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개발지연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개별 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임대 받은 사람이 나름대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개발을 생태계 보존(保存)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보전(保展)개념’ (Site Celebration) 안에서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쳐서 도시 및 지역개발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면, 그 연계지역 안에 포함된 지역들의 성장이 빨라지고 국토의 유기적인 통합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의 공생구조(共生構造)가 형성되어 통일국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 환경 친화적인 건축계획을 확립한다

모든 생물은 이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건축도 생물과 같이 자연환경과의 상호관계 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물질의 순환을 가능케 하는 건축 자재를 개발한

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재료는 재생된 건축자재로 가능하다. 이러한 대체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자연과의 연결고리(綱)를 찾아서 자연(SITE)을 보호(保護)하고 발전(發展, Celebrate)시키는 ‘보전(保展)건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지역 환경 문제에서 일어나는 공해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 전체에 파급되는 지구환경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계하여 연구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대치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탈 근대적 문명으로 전환하여 생태주의 적 ‘보전(保展)개념’을 확립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표로 한다.

#### 남북 공동대학의 신기술 개발연구소에 정보기술(IT)과 관련된 건축설계연구소를 개설한다

컴퓨터를 사용한 건축설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지리정보(GIS)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假想)도시’ (Cyber-Space)를 구축한다. 그리하여 인프라(기반시설)없이 ‘가상(假想)건축’ (Cyber Architecture)의 기능을 이용하여 실제 건물을 질 수 있는 ‘가상(可像)건축’ (Cyber Real)을 갖춘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신기술 개발을 하도록 한다. 새로운 공간문화를 연구한다.

남북관계를 논의할 때에 상대방의 잘못된 점만 꼬집는 행위는 통일이라는 과업을 놓고 볼 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의 논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과업을 수행하자면 평면적인 위치에서 보는 2차원적인 관점이 아닌, 양쪽과 세계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3차원의 시각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 높이를 높인다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와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이 나름대로의 체제형성과 이의 변화과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관점(Global Perspective)이라는 가치관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남북이 인격적으로 만나게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통일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주어진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북한의 도시계획과 건축도 봐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평등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원리는 생태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회의 체재를 자기 쪽의 체재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보전(保展)적 상생(相生)의 원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절충한 소위 복지국가 혹은 시장 사회주의와 같은 제3의 수정자본주의와도 다른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관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공간적 개념으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고리(綱)를 찾아서 자연(SITE)을 보호(保護)하고 발전(發展, Celebrate)시키는 것이며,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대치하는 근대적 문명에서 생태주의적 보전(保展)개념으로 바뀜을 말한다.

##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연구 내용

평양과 개성은 도시기능, 산업기능, 문화·관광기능, 환경기능, 국제교류기능 등이 집적되고 이러한 기능들이 교통 및 정보통신체계로 결합되어 형성될 수 있는 도시로서 서울과 연계하여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몽골을 거쳐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를 이루고 있다. 이 실크로드의 중요 기점이 되는 개성과 평양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행한다.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 생태건축에 관한 연구
- 가상건축의 현실화에 관한 연구
- 시티-커뮤터 교통체계에 관한 연구
-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관한 연구

### 연구 범위 및 방법

먼저 문헌조사와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실태분석을 시도하고 이러한 일차적 연구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과의 연구협의를 거치고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평양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의 생태도시의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1.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2. 특히 개성과 평양의 항공사진을 수집, 분석한다.
3. 위의 두 가지 자료 분석을 기초로 두 도시의 도시 및 건축 계획의 현황을 파악한다.
4. 독일 및 중국의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미국의 관계학계와 연구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5. 북한에 관한 자료를 독일과 중국의 경우와 비교, 유사점과 상이점을 파악한다.

6. 이 과정에서 중국과 독일이 갖고 있는 문제점등을 파악, 개성과 평양의 개발 과정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7. 생태철학에 입각한 도시 및 건축계획의 모델을 개성과 평양의 경우를 통해 구축한다. ㉞

※ 이 글은 우리협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